

정보활용이 고령층 삶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미숙** · 김희섭*** · 홍순구****

The Effects of Information Application of the Elderly on Their Lives*

Misook Lee** · Heesop Kim*** · Soongoo Hong****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effect of information application of the elderly on their lives through analysing the key papers on the topic. To achieve the aim of this study, we searched the papers from RISS, KISS, DBpia and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of the Republic of Korea, using keywords such as 'the elderly and informationization,' 'the elderly and information application,' and 'mediator effect.' In the search process, we did not limited the publication year or journal types. A total of 476 papers were searched as the result of the initial search. Based on three researchers consent of selection criteria, we finally selected 19 papers and analysed the important mediator variables between the information application and the life satisfaction or happiness. Using the content analysis, we analysed the quantitative analyses (including sample characteristics and sociodemographic statistics) and qualitative analyses (including result interpretation and policy implication about the elderly information education). After in-depth analysis of the papers, we built a table organized by the independent variable and the mediator variable. With the results, sever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and contributions are also explained.

Keyword : The Elderly, Informationization, Information Application, Content Analysis

Submitted : April 9, 2015

1st Revision : June 12, 2015

Accepted : June 20, 2015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3A2033394).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원, 주저자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공동저자

**** 동아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 교신저자

1. 서 론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고령화와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구의 고령화는 개인적,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고속의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와 함께 사회의 또 하나 변화의 축인 정보화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사회, 경제, 문화, 복지 등의 사회 전반의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 정보화는 개인의 일상적인 삶의 양식에 영향을 주었으며, 인터넷 활용 능력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로 자리 매김하게 되었다. 반면에 이는 또한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정보격차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적 정보 활용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연령과 계층, 지역별로의 정보격차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Noh and Yoo, 2006; NIA, 2013). 정보격차는 새로운 정보와 기술에 대한 적응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층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이러한 고령층의 정보격차는 접근과 정보력 부족으로 인한 각종 서비스에서의 소외, 세대 격차 등 개인 생활 영역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 차원에서 소외와 고립을 발생시키게 된다(Kim, 2003).

고령화와 맞물려 고령층 정보격차의 심각성이 인식되면서 고령층의 정보화 관련 연구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고령층을 정보화의 피해자라는 시각에서 연구가 시작되어 고령층의 정보활용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으나 점차 정보화에 대한 고령층의 태도와 인식에 대한 연구들로 발전해나갔다. 이러한 결과와 사회적 요구, 정책적 전략들이 맞물려 최근에는 정보화가 고령층의 사회문제를 해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인식되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를 계기로 최근 연구자들은 정보화가 고령층의 삶, 생활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Kwon et al., 2012). 또한 Shin and Koo(2010)의 연구에서 고령층의 정

보화교육이 고령층의 생활만족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령층의 정보활용에 따른 삶 또는 생활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고령층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궁극적으로 정보활용능력은 사회성, 정신건강 등 노년기 적응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성공적 노화를 성취할 수 있는 중요요인으로 분석되어 졌다(Kim, 2006).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법을 활용하여 정보화가 고령층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정보화와 고령층의 관계를 분석한 문헌자료를 수집하였다. 정보화가 고령층 정보활용의 영향에 관한 연구들의 특성과 기존 연구들을 통합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보화를 통해 고령층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어떠한 것인지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고령층들의 실질적 정보활용 능력이 일상생활의 만족과 성공적 노화의 궁극적 지표가 되는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즉, 정보 활용이 고령층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요인을 포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고령화 사회에서의 정보화 기능에 대해 논의해 보고 고령층의 정보활용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내용분석법

내용분석법(content analysis)은 20세기 초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질적 연구방법론으로 기록되어 있는 문헌자료를 분석하는 기법이다(Lee, 2007). 특히, 개인이나 사회의 의사소통 기록물인 신문, 서적, 잡지, TV, 라디오, 영화, 일기,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연설, 편지, 일기, 상담기록서 등을 통하여 연구대상에 대한 자료를 간접적으로 얻는 자료수집 방법으로 처음에는 미디어 또는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였지만 최근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자료들을 체계적, 객관적, 양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Kim, 2005).

내용분석법은 지면의 수, 분량, 빈도와 같은 양적 지표를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양적 분석에서 출발하였으나, 분석하는 기록단위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 및 내용, 전달과정을 분석하는 질적 분석도 활성화되고 있다(Lee, 2013). 예를 들어, 이누이트 민담연구에서 “분쟁”, “동맹”, “수호신”과 같은 용어가 등장하는 빈도를 양적으로 분석하는 동시에, 그 용어가 사용되는 맥락과 민담의 전체구조에서 갖는 의미를 질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내용분석법의 질적 분석이 활성화됨에 따라 연구의 동기, 원인, 결과 및 영향을 체계적으로 추리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내용분석법에서는 크게 분석유목과 분석단위로 나누어 자료를 분석한다. 분석유목은 일반적인 연구의 변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떤 항목으로 나누어 분석할 것인가를 다룬다. 예컨대, 음악 교과서의 내용은 시대별, 음악가별, 국적별, 장르별로 나누어서 그 비중을 분석해 볼 수 있다. 이 때 분석의 기준이 되는 시대, 음악가, 국적, 장르가 분석유목에 해당한다. 분석단위는 기준과 항목에 따라 분류하고 빈도를 조사할 때 집계하는 내용의 최소단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내용 분석법에서는 ‘연구 분석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와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분석유목으로 설정하는가’하는 것이 중요하며(Kang, 2009), 다른 연구와 마찬가지로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한 명확한 분석기준을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Cha, 2012).

내용분석법은 일반적으로 연구의 문제인식, 연구 설계, 분석 및 결과해석의 세 단계로 진행되며 그 단계별 검토항목은 <Table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Lee, 2007).

본 연구에서는 제 1장 서론에서 연구의 문제의식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제 3장 분석 부분에서 “정보활용이 고령층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 연구에서 ‘발표연도’, ‘자료수집방법’, ‘연구 대상자 수’, ‘연구지역’, ‘연구 대상자 연령’에 대한 빈도를 양적으로 분석하고, 고령층의 정보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각 연구에서 사용된 매개변수의 의미를 질적으로 분석함으로써 2가지 접근법을 모두 활용하였다. 또한, 제 4장 연구 결과에 따른 시사점에서 분석결과를 해석하였다.

3. 분석

3.1 문헌 자료의 규정 및 분석단위 선정

연구를 위해 정보화가 고령층에게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국내 학술지 논문을 포괄적으로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고령화문제와 이에 따른 고령층의 정보활용 및 삶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고령층의 정보화 수준 등을 고려하기 위해 문헌자료의 범위를 국내논문으로 한정하였다. 논문의 연도에 제한은 별도로 두지 않았고 주요 검색어는 ‘고령층’ & ‘정보화’, ‘고령층’ & ‘정보활용’으로 하였으며, 문헌검색은 2013

<Table 1> Stepwise Check Items of Content Analysis

Stage	Details and Procedures	Check Items
Problem Identification	◦ Study Problem and hypothesizing	◦ Define Study Problem and Hypothesis Clearly
Study Design	◦ Define Data and Sample	◦ Define the Scope and Scale of Literature Data
	◦ Define Analysis Unit ◦ Define Analysis Standard	◦ Explain the Standard of Analysis Unit ◦ Operational Definition
Analysis and Result	◦ Coding	◦ Coding Guideline
	◦ Analysis of Statistical Procedures and Application	◦ Coder and Training
	◦ Result Interpretation	◦ Reliability

년 11월 4일부터 2014년 6월 30일 까지 이루어졌다. 인터넷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국내 데이터베이스인 학술연구정보 서비스(RISS)와 한국학술정보(KISS), DBpia, 국회전자도서관을 이용하였다.

분석대상 논문을 선별하기 위해 먼저 논문 제목을 보고 일차 선별 작업을 하였으며 그 후 초록을 살펴봄으로 선정 및 배제를 결정하였고 초록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 논문의 전문을 살펴봄으로써 판단하였다. 이 과정에는 3명의 연구원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서로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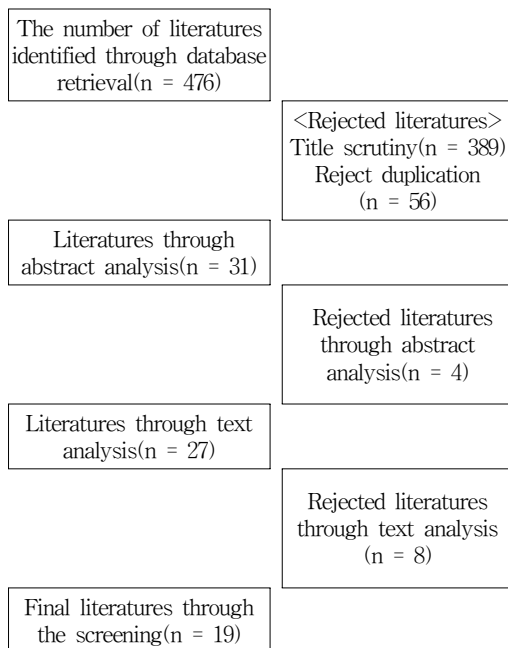
이러한 기준을 통해 문헌을 검색한 결과, 총 476편의 문헌이 검색되었고, 전체 검색 문헌 중 제목 검토로 인해 87편이 선정되었다. 이들 문헌 중 56개의 중복 문헌을 제거 한 후 초록 검토를 통해 31편의 논문을 선택하였고 전문 검토를 통해 총 27편이 연구대상 문헌으로 선정되었지만, 평가를 통해 ‘노인, 고령층, 또는 노년층’, ‘정보화’, ‘정보활

용’과 관련되어 선정된 문헌은 19편으로 결정하였다. 자료의 선정과정은 <Figure 1>과 같다. 이러한 엄격한 선행연구의 선정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내용분석법의 내용 타당성을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으며 3명의 연구원과 함께 문헌 검색을 하며 의견수렴을 하였기 때문에 자료수집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3.2 문헌자료 고찰

고령층의 정보활용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 주로 나오는 변수들로 자기 효능감, 자아통제감, 자존감, 생활만족, 삶의 행복감 등이 있다.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이란 특정한 문제를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이나 기대감을 의미한다(Jung and Lee, 2014). 특히 정보활용에서 자기효능감이란 정보기기 조작에 관련된 활동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 및 자신감으로 정보기기 사용에 대해 만족하거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음을 의미한다. 자아통제감(self-control)이란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삶을 영위하며, 주어진 환경 내에서 원하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한다(Kim et al., 2012). 자존감(self-esteem)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을 의미한다(Yoo and Son, 2012). 많은 연구결과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으며 매사에 부정적 평가를 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만족이란 자기 만족감과 사회적 관계형성을 통해 지각되는 감정으로 현재 생활을 긍정적으로 보는 주관적 만족과 미래에 대한 기대로서 개인의 심리적·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복합적 감정으로 정의한다. 삶의 행복감이란 인간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정서적·인지적 감정 상태로서 ‘삶 속에서 느끼는 충분한 만족과 기쁨’으로 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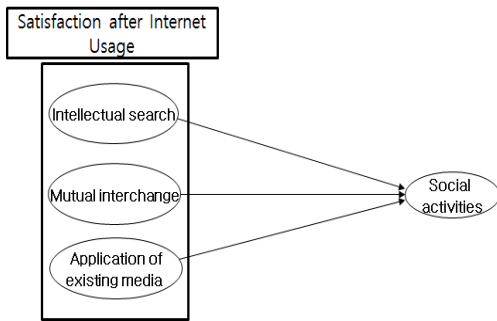
주요 연구에 대한 개별적 고찰 결과를 연도 순



<Figure 1> Literature Selecting Procedure

에 따라 모형과 함께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

Chang(2004)은 고령층이 인터넷 이용 후 지각하고 있는 3가지 만족감(지적 탐구성, 상호교류성, 기존매체활용성)이 고령층의 사회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고령층의 지적 탐구성이 증가할수록 사회활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인터넷은 고령층 생활에 활력을 주는 미디어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의 긍정적인 효과를 부각시켜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콘텐츠 개발, 고령층 직업교육 차원에서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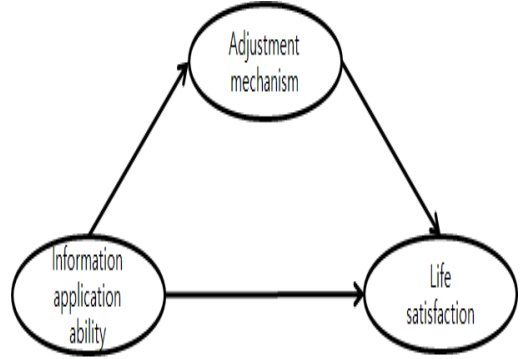


<Figure 2> Study Model of Chang(2004)

Kim(2006)는 고령층의 정보활용 능력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정보활용 능력은 정보제공, 정보이용, 정보비판의 세 가지 능력으로 분류하였으며, 변화에 대한 적응 유연성을 의미하는 적응기제는 도전, 몰입, 통제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자신과 타인의 일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는 헌신적 기질을 소유하고 정보제공 능력이 높은 고령층의 경우 삶의 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고령층의 삶의 만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기질적으로 유연성을 가지고, 성격 대담성을 높이고 정보 활용능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방안과 함께 고령층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논의가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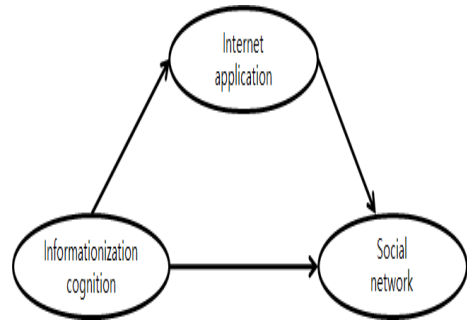
Lee and Myeong(2010)은 전국의 정보화교육 수강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보화 인식과 인터넷 활용은 고령층의 공적·사적 네트워크 형

성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Figure 3> Study Model of Kim(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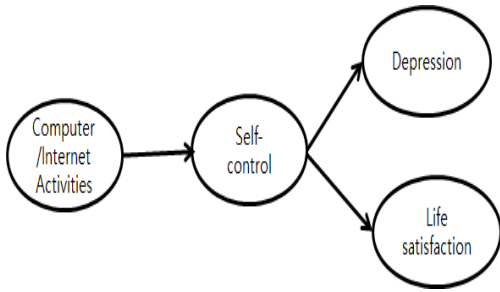
저자들은 고령층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 요소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고령층만을 위한 정보화교육프로그램이 지방자치 단체의 특성화된 정보화사업으로 정착되어야 하고 또한 고령층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는 고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행사를 정례화 하여 고령층이 자발적으로 단체활동과 조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Figure 4> Study Model of Lee and Myeong(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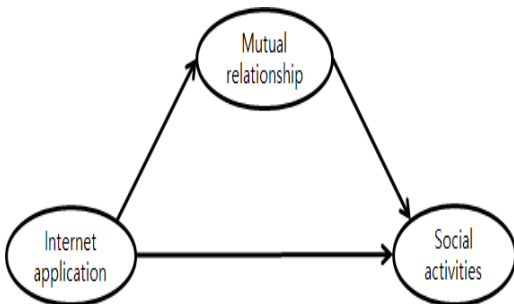
Ahn et al.(2011)의 연구에서 고령층의 컴퓨터/인터넷 게임활동을 노년기 여가활동으로 설정하여 이러한 가상공간상에서의 활동이 고령층들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울은 나는 우울함을 느낀다/나는 슬픔을 느낀다/설 새 없이 졸음이 온다 등 10개의 항목으로 측정하였으며

생활만족도는 지금이 내 삶의 황금기이다/내 삶을 회고해보면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가족과의 생활이 만족스럽다 등 4가지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고령층의 컴퓨터/인터넷 활동은 우울과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아통제감을 통해서 생활만족도를 높이고 우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고령층을 위한 콘텐츠 개발 시 인지, 신체 특성을 고려할 뿐 아니라 고령층이 자아통제감을 얻을 수 있는 방향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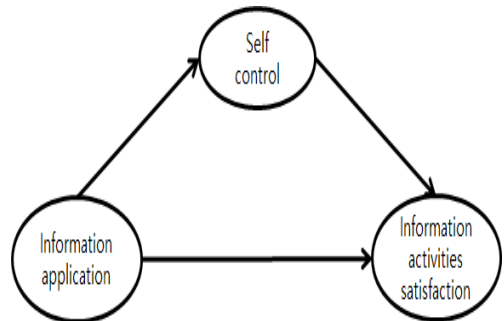
<Figure 5> Study Model of Ahn et al.(2011)

Kim et al.(2011)은 장·노년층의 인터넷 활용능력과 사회활동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능력이 부분 매개효과를 가짐을 검증하였다. 또한 50대는 인터넷활용능력이 높고 60대의 경우 사회활동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시대 장·노년층의 정보화교육은 노년기 사회활동을 증대할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활용기술과 관련되어 진행되어야 함을 입증하였다.



<Figure 6> Study Model of Kim et al.(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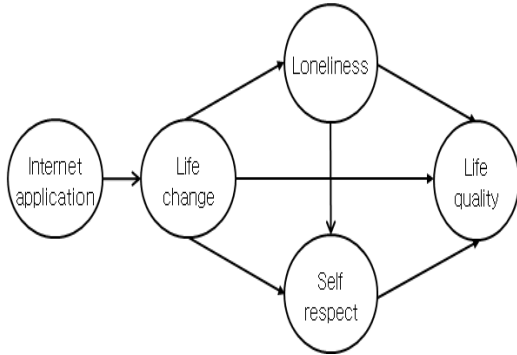
Kim et al.(2012)의 연구에서 베이비붐세대의 정보화활용 정도를 파악하고 정보화 활용정도가 정보화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통제변인으로 인구사회적 특성인 연령, 성별, 결혼상태, 교육수준, 월소득, 직장유무를 사용하였으며 이들 특성 중 연령, 성별, 직장유무, 교육수준, 월소득에 따라 정보화활용 정도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베이비붐세대의 정보화활용 능력은 정보화에의 접근용이성(3), 디지털 정보기기 사용시간(3), 의사소통능력(4),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4), 정보기기 의존도(4)의 5가지를 사용하였다. 자기통제력은 내가 계획한 것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많은 일들을 변화시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적이다 등 긍정적·부정적 항목 7가지로 측정하였다. 정보화 생활만족도는 새로운 것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증가하였다/생활이 훨씬 즐겁고 만족스럽다 등 6가지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정보기기 사용시간이 길수록 정보화 생활만족도는 낮게 나타났으며, 정보접근이 용이하고 활용능력이 높고 의존능력이 높을수록 정보화 생활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정보화 접근 용이성은 자기통제력을 매개로 정보화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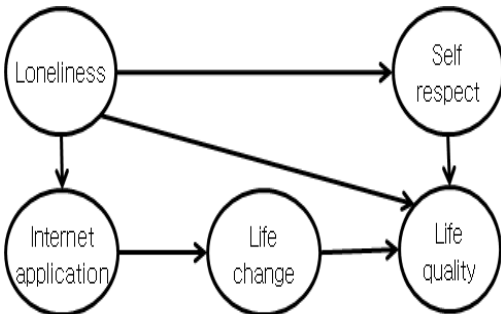
<Figure 7> Study Model of Kim et al.(2012)

Yoo and Son(2012)의 연구에서 고령층의 인터넷 활용이 생활변화, 고독감, 자존감 그리고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초기 모형에서는 인터넷 활용이 고령층의 고독감을 완

화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여 아래 <Figure 8>과 같이 설정하였으나, 최종분석 결과 고령층의 고독감이 고령층으로 하여금 인터넷을 활용하게 하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고령층은 자존감이 높을수록 삶의 질에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인터넷 활용이 자존감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즉,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고령층의 자존감을 높여야 하며, 이러한 자존감 향상을 위해 인터넷 매체를 활용케 하는 것이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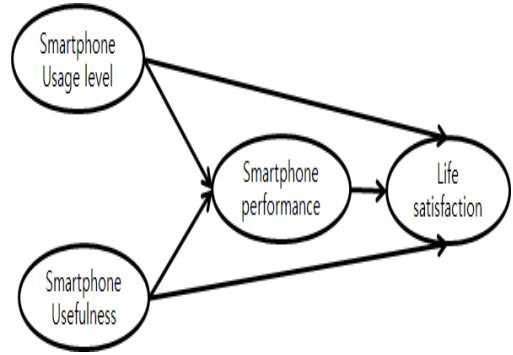
<Figure 8> Initial Study Model of Yoo and Son(2012)



<Figure 9> Modified Study Model of Yoo and Son(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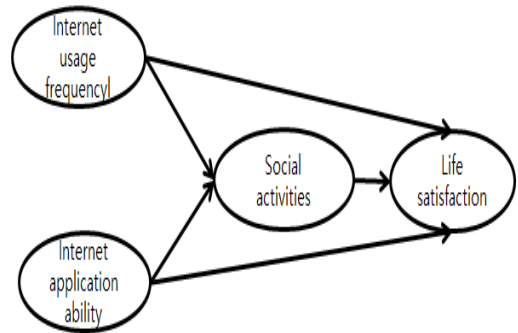
Kang et al.(2013)의 연구에서 고령층의 스마트폰 정보활용(스마트폰 이용수준, 이용도움정도)과 스

마트폰 이용성과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스마트폰 관련척도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제시한 척도(2012)를 사용하였다. 통제변인으로 연령, 성별, 배우자유무, 학력, 소득, 건강상태, 직업유무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스마트폰 이용수준과 스마트폰 이용도움정도는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이용성과를 통해 삶의 만족도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분석한 결과, 총효과 중 직접효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10> Study Model of Kang et al.(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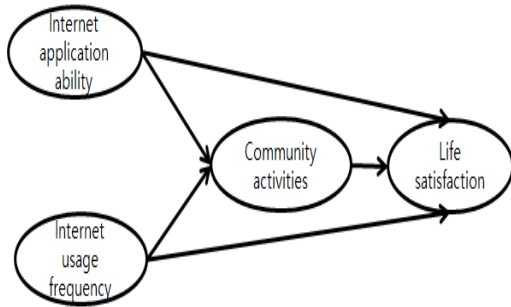
Jung et al.(2013)은 고령층의 인터넷 활용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활동이 가지는 역할에 대해 연구하였다. 고령층의 인터넷 활용빈도는 생활만족도의 영향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



<Figure 11> Study Model of Jung et al.(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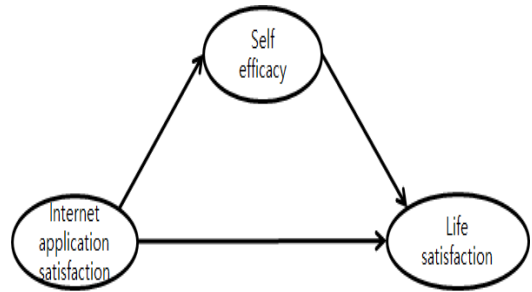
났으며 인터넷 활용 능력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령층의 사회활동은 인터넷 활용 능력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et al.(2014)의 연구에서는 고령층의 공동체 활동을 매개변수로 하여 고령층을 자원봉사집단과 비 자원봉사 집단으로 나누어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인터넷 활용능력이 공동체 활동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12> Study Model of Kim et al.(2014)

Jung and Lee(2014)는 정보화 교육 참여고령층을 대상으로 인터넷 활용 만족 수준을 분석하여 인터넷 활용만족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자기효능감이 갖는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인터넷 활용만족도는 (1)인터넷 활용을 통한 정보/지식 욕구, (2)오락 욕구, (3)업무/사회성 욕구, (4)사이버거래 욕구 등의 충족 정도로 측정하였으며, 자기효능감은 일반적 자기 효능감, 사회적 자기 효능감, 신체적 자기 효능감으로 2차 개념화 하여 측정하였으며 생활만족도는 Choi(1986) 개발한 고령층 생활만족도 척도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인터넷 활용 만족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이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령층의 생활만족도는 인터넷 활용만족도 자체만으로 설명되는 것 보다 자기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요인을 통하여 좀 더 정확하게 설명됨을 보여주었다.



<Figure 13> Study Model of Jung and Lee(2014)

3.3 문헌자료에 대한 종합적 고찰 결과

3.3.1 문헌자료의 표본 특성

대상논문(고령층, 정보화, 정보활용 관련논문) 들의 출판연도는 제 2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의 시작인 2006년을 기준으로 나누어 볼 때, 2006년 이

<Table 2> Sample Characteristics(N = 19)

Characteristics	Division	n
Published year	2003	1
	2004	1
	2006	1
	2009	2
	2010	2
	2011	3
	2012	3
	2013	3
	2014	3
	Data selection	secondary data
survey		17
Sample	< 300	8
	300~499	6
	500~999	2
	≥ 1,000	3
Study region	Seoul and Gyeonggido	6
	Busan	2
	Daegu and Gyeongsangbukdo	4
	Gwangju and Jeollanamdo	1
	the whole country	6
Sample age	≥ 55	4
	≥ 60	8
	≥ 65	5
	not described	2

전에는 2편, 2006년 이후에는 17편이 발표되었으며, 출판년도에 제한을 두지 않았음에도 2003년 이전 연구는 없었다. 자료수집 방법을 살펴보면 2차 데이터를 사용한 연구가 2편,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한 경우가 17편이었으며, 설문조사의 경우 대상자들을 임의표본추출 하여 조사하였다. 샘플의 크기는 1,000개 이상이 3편, 500개 이상 1,000개 미만인 연구가 2편, 300개 이상 500개 미만인 연구가 6편, 300편 미만인 연구가 8편으로 설문조사 연구의 경우 1편의 연구 외 모두 1,000개 이하의 샘플 수를 보여준다. 연구지역별로는 전국 범위 6편, 서울·경기 지역 6편, 부산 지역 2편, 대구·경북 4편, 광주·전남 1편으로 나타났고 연구별 고령층의 기준 연령 정의는 55세 이상 4편, 60세 이상 8편, 65세 이상 5편, 기술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2편이었다.

3.3.2 문헌자료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고령층의 인터넷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고령층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유의미성을 검토한 연

구는 7편으로, 이들 연구에서 14개의 변인이 분석되었다. 14개의 변인 중 적어도 한 편 이상의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은 11개이며, 3편 이상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이 검증된 변인은 학력과 경제상태, 성별, 연령으로 4개 이다. 따라서 저학력 보다는 고졸 이상의 고학력의 고령층이, 경제 상태가 좋을수록,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정보화 활용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

3.3.3 고령층의 정보활용 효과

연구들에서 나타난 정보활용이 고령층에게 미칠 수 있는 효과들을 정리하여 보면 생활만족 혹은 삶의 만족도와 그 효과를 세분화 하여 사회적 영역과, 심리·정서적 영역에서의 효과를 다룬 연구들이 있다. 생활전반의 만족을 다룬 생활만족도 연구는 11편, 정보활용이 고령층의 사회활동에 긍정적 기여를 하는 것으로 분석한 사회적 영역의 연구와, 고령층의 개인 정신건강에 초점을 맞춘 심리·정서적 영역은 각각 4편씩이 있다. 심리·정서적 영역으로 분류된 연구들에서는 고령층의 정보활용이 자아 효능감, 자아 존중감, 우울, 자살, 고독에 긍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한다.

또한 각 효과의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생활만족도에는 인터넷 활용 능력, 접근 용의성, 의존능력, 사용시간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인터넷의 활용능력이 높을수록, 정보기기의 접근이 용이하고, 의존능력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 사용시간은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 사회적 영역에는 고령층의 정보활용 유형과 정보활용의 만족요인이 사회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데 정보탐색/의사소통유형과 지적탐구요인에 만족하는 고령층이 정보활용을 통한 사회활동참여를 더 활발하게 하며, 정보활용은 고령층의 공적 네트워크와 사적 네트워크 형성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Table 3> Sociodemographic Variables Influencing on the Information Application of the Elderly

Division	Variables	n
Sociodemographic Variables	education	6
	age	3
	income	3
	gender	4
	the state of employment	2
Family structure	the existence of spouse	1
	time of computer usage/day	1
Variables related to informationization	frequency of computer usage/week	1
	duration of computer usage	2
	the number of sites enrolled as a member	1
	the number of visiting sites	1

3.3.4 매개변수의 효과

체계적 문헌 고찰에 사용된 19편의 논문에서 매

개변수의 효과를 살펴본 논문은 총 10편이다. 사용된 매개변수로는 사회활동, 적응기제, 숙련도, 자기통제, 자존감, 자기효능감이 있으며 이들 매개변수는 모두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활동과 적응기제는 고령층의 인터넷 활용과 생활만족도 사이를 매개하며, 정보활용의 숙련도는 정보통신기기 사용 유무와 고령층의 심리적 안정감과의 관계를 매개하여 숙련도가 높을수록

우울과 고독은 낮아지고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 또한 자기 통제력은 정보활용의 변인 중 하나인 접근용이성과 생활만족도 사이를 매개하며 그 외 정보활용과 생활만족도를 매개하는 변수로는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이 있다. 자기통제력(자아통제감)이란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삶을 영위하며, 주어진 환경 내에서 원하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한다.

〈Table 4〉 Three Categories of Literatures about the Elderly's Information Application(N = 19)

Divisin	Significant Result	Literatures	Mediator	Survey Region	Sample
life quality and life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	Ahn et al.(2011)	self-control	whole country	237
		Kim et al.(2012)	self-control	whole country	400
		Jeong et al.(2013)	social activity	Seoul(secondary data)	1862
	living satisfaction	Kim(2006)	adjustment mechanism	whole county	328
		Kang et al.(2013)	information application performance	Seoul	317
		Kim et al.(2014)	community activity	Daegu · Gyeongsangbukdo	153
	life quality	Park and Lee(2003)	self-esteem self-efficacy	Daegu · Gyeongsangbukdo	313
		Yoo and Son(2012)		whole country	650
		Jung and Lee(2012)		Gwangju · Jeollanamdo	290
		Kim et al.(2014)	Daegu · Gyeongsangbukdo	374	
social area	social activities	Chang(2004)	personal relationship	Pusan	275
		Chang and Lee(2010)		Pusan	1464
Kim et al.(2011)		Seoul		943	
	social network	Lee and Myeong(2010)		Seoul · Gyeonggido	213
psychological area	self-efficacy	Hwang et al.(2011)		Seoul	139
	self-esteem	Kim et al.(2009)	skill	Seoul	143
		Hwang et al.(2011)		Seoul	139
	depression	Kim et al.(2009)		Seoul	143
		Lee(2013)		whole country (secondary data)	6774
	suicide	Lee(2013)		whole country (secondary data)	6774
	loneliness	Kim et al.(2009)		Seoul	143
happiness	Lee et al.(2014)		Daegu · Gyeongsangbukdo	371	

4. 연구결과에 따른 시사점

본 연구는 한국의 이슈가 되고 있는 고령층과 정보화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시도하였으며, 정보화 사회에서의 고령층의 인터넷 활용능력이 고령층의 삶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효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발간된 연구들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19편의 선행연구들에 대한 문헌 고찰을 실시한 후, 이를 정리하였다.

문헌고찰을 통해 연구들의 일반적 특성과 고령층의 인구·사회학적특성 중 인터넷 활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연구에서 조명된 효과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매개변수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첫째, 내용분석의 양적인 분석결과 출판 연도의 제한이 없었음에도 선정된 논문들 중 2004년 이전의 논문이 없었는데, 이는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된 정보화 정책과 더불어 학문적 연구도 시작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보화를 고령층 문제해결의 한 방안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고령층 정보격차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고령층 정보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정보화로 인한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난 시기는 2000년도 중반이후로 보인다(Kwon et al., 2013). 연구지역을 보면 전국적으로 실시한 연구는 4편(36.4%), 서울·경기 지역 3편(27.2%), 부산 지역 2편(18.2%), 기타 2편(18.2%)으로 전국 단위의 4편을 제외한 다른 연구들은 모두 도시지역으로 농·어촌지역에서의 연구는 없다. 도시보다 농·어촌은 고령화의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며, 고령층의 정보격차도 문제가 되지만 지역별로는 도시에 비해 농·어촌지역의 정보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여 농·어촌 지역에 사는 고령층의 정보격차는 도시의 고령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균형이 심각할 것이다. 또한 Park(2000)의 연구에 의하면 도시와 농촌 지역 고

령층은 생활환경도 다르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복지욕구 등 생활 전영역에서의 이질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연구지역이 도시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연구결과들이 전체 고령층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으며, 농·어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후속연구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노년기 연구에서 노인을 범주화 시키는 기준 연령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노인 관련 법규들에서는 고령층의 기준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을 기준으로 하여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65세 이상을 노인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수명연장으로 인한 노년기의 확대, 신체의 노화, 사회적 지지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많은 연구에서 노인집단을 75세 기준으로 전기(65~74세)와 후기(75세 이상)로 나누어 보고 있다. 선정 문헌들을 보면 55세 이상과 60세 이상이 대부분이며 법률상 노인으로 정의되는 65세 이상의 논문은 1편으로 사실상 장년층으로 분류되는 대상들을 다룬 연구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보화 수준과 접근성의 문제로 볼 수 있는데 한국정보화진흥원(2013)에 따르면 일반국민 대비 50대의 인터넷 활용률은 76.6%로 비교적 높은 것에 반해 60세 이상은 33.9%로 인터넷을 활용하는 주 이용층과 많은 차이가 나지만 50대와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보화로 인한 영향을 다루기 위해서는 이용률이 더 높은 집단으로 연령의 기준을 낮출 필요성이 있었거나, 표본 추출 계획 단계에서 정보활용이 가능한 대상자, 지역사회 복지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중심으로 연구를 계획하였기에 65세 이상의 고령층들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50대와 60대 사이의 정보격차, 같은 노령층 안에서도 연령별 상이한 특성으로 인해 전기, 후기를 구분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65세 이상의 노령층을 주 대상으로

정보화의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많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장년층 보다 신체적, 사회적으로 제한이 더 따르는 노년층에 더 높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셋째, 고령층의 정보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는 6편의 연구에서 14개의 변인이 분석되어졌다. 14개의 변인 중 11개의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인들을 살펴보면 남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업이 있으며, 배우자가 있는 고령층의 인터넷 활용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일 컴퓨터 사용시간이나 주당 컴퓨터 이용 횟수, 컴퓨터를 사용한 기간, 회원가입 사이트 수, 한번 접속 시 방문 사이트 수도 고령층의 인터넷 활용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는 연구도 있다. 이들 중 3편 이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인은 학력과 소득, 성별, 연령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2010)이 보고한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난다. 또 인터넷 이용 고령층들의 특성을 정리한 Kwon et al.(2012)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 보고자한 정보화의 영향에 의해서는 모든 대상 문헌에서 정보화가 고령층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내외의 연구결과들과 동일한 흐름이며, 정보화를 통해 고령층의 문제와 성공적 노화를 돕고자 하는 정책적, 사회적, 학문적 경향을 지지할 수 있는 결과로 보여진다. 매개변수 효과 또한 6편 모두 부분매개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정보화에 영향을 받는 효과 변인과 매개변수는 사회성과 심리·정서적영역 등 전국민 대비 고령층의 기반이 약한 것을 포함하는데 이 또한 정보화가 고령층의 삶의 위협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반영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자료 수집과정에서 살펴본바 연구에 선정된 논문이 총 19편인 것은 고령층의 정보화 수준이 그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아직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한국 사회는 정보화가 선택이 아

니라 필수인 시대이며 고령층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렇다면 고령층의 정보화에 대한 태도, 인식 등의 연구에서 한 단계 나아가 정보화의 이점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단순히 고령층의 정보 접근 수준, 이용 수준을 통한 분석이 아닌 생활 속에서의 정보, 활용 방법과 유형에 대한 연구와 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영향에 대해 측정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국내의 정보화로 인해 고령층에게 미치게 되는 영향을 문헌고찰과 실증적 검증을 통해 고령화 시대에 정보화가 가져오는 의미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내의 총 4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국내 학술지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검색 결과 총 468편의 연구 논문에서 연구조건에 맞는 19편의 논문을 선정하여, 대상 논문의 일반적 특성과 정보활용에 영향을 주는 고령층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정보활용의 효과, 정보화와 효과사이를 매개하는 변수, 즉 4가지 차원에서 연구논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구 설계는 모두 유사실험설계 이하의 설계수준이었고 자료 수집 방법은 2차 자료를 활용한 4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표본추출은 임의표본추출을 통해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정보화는 고령층의 삶의 질과 생활만족도를 높이고, 고령층의 사회활동과 심리·정서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활동과 고령층의 적응기제, 정보활용의 숙련도, 자기통제력,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이 정보화와 효과변인들 사이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학문적 공헌도는 고령층의 정보화와 관련된 문헌자료에 대한 내용분석을 함으로써 질적연구방법론의 확대에 기여하였고 고령층 정보화 관련 학문적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었다. 실무적 공헌도는 고령층 정보화 관련 교육 및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국내 학술지만을 대상으로 하여 출간되지 않은 학위논문의 결과를 배제하였다는 것과 국내의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 4곳을 통해 검색하였지만 검색어나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색되지 않은 연구논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References

- Ahn, J.H., K.C. Lim, Y.J. Lee, and K.S. Kim, "Effects of Computer/Internet Game Play on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Self-Control",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e*, Vol.11, No.7, 2011, 406-417.
(안준희, 임경춘, 이윤정, 김경식, "컴퓨터/인터넷 게임 활동이 노인의 우울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자아통제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7호, 2011, 406-417.)
- Cha, S.B., "Methodological Review of Content Analysis Applied to the Tourism Studies", *Korean Journal of Hospitality Administration*, Vol.21, No.6, 2012, 215-229.
(차석빈, "관광분야 연구에서 사용된 내용분석법의 방법론 분석", *호텔경영학연구*, 제21권, 제6호, 2012, 215-229.)
- Chang, M.O., "The Effect of Older People's Internet Uses and Gratification on Social Activities", *Andragogy Today :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Vol.7, No.3, 2004, 133-154.
(장미옥, "노인들의 인터넷 이용후의 만족이 사회 활동에 미치는 영향", *Andragogy Today :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제7권, 제3호, 2004, 133-154.)
- Chang, S.J. and J.S. Lee, "Computer Use and Social Participation in Old Age : Analysis according to the Computer Use Patterns of Young Old",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62, No.3, 2010, 353-374.
(장수지, 이재정, "노년기 컴퓨터 이용과 사회활동 참여 : 전기 노인의 컴퓨터 이용형태에 따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제62권, 제3호, 2010, 353-374.)
- Choi, S.J., "The Study of Life Satisfaction Scale Development for the Elderly", *Ewha Womans University Korean Culture Institute Review*, Vol.49, 1986, 233-256.
(최성재, "노인의 생활만족도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제49권, 233-256.)
- Hwang, E.H., S.J. Shin, and D.Y. Jung, "A Study of the Pattern of Elderly's Internet Usage, Self-efficacy, and Self-esteem",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25, No.1, 2011, 118-128.
(황은희, 신수진, 정덕유, "노인의 인터넷 사용 실태, 자아효능감,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제25권, 제1호, 2011, 118-128.)
- Jeong, K.H., J.H. Yun, and J.S. Kim, "The Effects of Internet Utilization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The Meditating Effect of Social Activit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44, No.2, 2013, 357-382.
(정규형, 윤지희, 김종성, "노인의 인터넷 활용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사회활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44권, 제2호, 2013, 357-382.)
- Jung, M.S. and Y.R. Lee,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Satisfaction of the Internet Use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 A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 Andragogy Today :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Vol.15, No.1, 2012, 63-85.
- (정인숙, 이유리, “정보화교육 참여노인의 인터넷 활용만족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Andragogy Today :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제15권, 제1호, 2012, 63-85.)
- Kang, W.S., M.S. Kim, and J.U. Ko, “Effects of the Smartphone Information Use and Performance on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33, No.1, 2013, 199-214.
- (강월석, 김명숙, 고재욱, “스마트폰 정보활용과 이용성과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제33권, 제1호, 2013, 199-214.)
- Kim, B.W., “The Analysis on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mong Information Literacy Adjustment Mechanism and Life Satisfaction for Elderly”,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33, 2006, 225-256.
- (김봉화, “노인의 정보활용, 적응기제 및 삶의 만족도간의 구조방정식 분석”, *노인복지연구*, 제33권, 2006, 225-256.)
- Kim, D.B., S.B. Kim, and S.J. Kim, “The research of ability to use internet, interpersonal skill, and social activity among the 50's and 60's in seoul : latent mean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31, No.2, 2011, 733-749.
- (김동배, 김상범, 김세진, “서울지역 장·노년층의 인터넷 활용능력, 대인관계능력, 사회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31권, 제2호, 2011, 733-749.)
- Kim, H.K., “A study on the Information of the Elderly”,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20, 2003, 69-94.
- (김혜경, “노인 정보화교육의 실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20권, 2003, 69-94.)
- Kim, M.R., S.J. Kwon, and C.S. Park, “Baby-boomer's Use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It's Effect on the Digital Life Satisfaction-The Mediating Effect of the Self-mastery”,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57, 2012, 113-136.
- (김미령, 권순재, 박충선, “베이비붐세대의 정보활용이 정보화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제57권, 2012, 113-136.)
- Kim, P.S., H.S. Kim and M.S. Lee, “The Effect of the Elderly's Information Application Level on Quality of Lif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Vol.17, No.1, 2014, 25-47.
- (김관수, 김희섭, 이미숙, “고령층의 정보 활용수준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정보학회지*, 제17권, 제1호, 2014, 25-47.)
- Kim, P.S., M.S. Lee, and S.D. Hwa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use and satisfaction of life according to elderly's volunteer participation”,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64, 2014, 187-206.
- (김관수, 이미숙, 황성동, “고령층 자원봉사 참여여부에 따른 인터넷 활용과 삶의 만족도 관계 분석”, *노인복지연구*, 제64권, 2014, 187-206.)
- Kim S.T., “A Meta Analysis of Content Analysis Research in Korea : Focusing on Methodological Elements for better Content Analysis Research”, *Communication Theories*, Vol.1, No.2, 2005, 39- 67.
- (김성태, “국내 내용분석 연구의 방법론에 대한 고찰 및 제언”, *커뮤니케이션 이론*, 제1권, 제2호, 2005, 39-67.)
- Kim, S.Y., M.S. Choi, C.D. Chung, and Y.S. Hong, “A Study on the Effects of Mobile

- Communicational Devices on the Emotional Stability of the Elder Person”,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Webcasting, Internet 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 Vol.9, No.6, 2009, 219-226.
- (김수연, 채명신, 정창덕, 홍유식, “모바일 통신기기 사용이 노인의 심리적 안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논문지*, 제9권, 제6호, 2009, 219-226.)
- Kwon, J.D., Y.J. Kim, and T.Y. Um, “A qualitative study on experiences of internet use in their daily lives and its meaning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32, No.3, 2012 835-50.
- (권중돈, 김유진, 엄태영, “노인의 일상생활에서의 인터넷 활용 경험과 그 의미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노년학*, 제32권, 제3호, 2012, 835-850.)
- Lee, M.S., J.H. Moon, and H.S. Kim, “The Influence of Information Activities on the Feeling of Happiness for the Elderly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25, No.2, 2014, 25-40.
- (이미숙, 문진현, 김희섭, “고령층의 정보활동이 삶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비블리아*, 제25권, 제2호, 2014, 25-40.)
- Lee, S.H., “Methodological Review of Content Analysis Applied to the Public Administration Studies”, *Journal of Administration*, Vol.45, No.2, 2007, 1-23.
- (이상호, “행정학 연구에서 사용된 내용분석법의 방법론 분석”, *행정논총*, 제45권, 제2호, 2007, 1-23.)
- Lee, Y.J., “The Effect of Information Condition on Mental Health among Elderly”,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and Management*, Vol.11, No.10, 2013, 17-29.
- (이윤정, “노인의 정보기기 접근 수준이 정신건강 영역에 미치는 영향”, *한국디지털정책학회*, 제11권, 제10호, 2013, 17-29.)
- Lee, B.J. and S.H. Myeong., “An Exploratory Study on the Internet Application of the Elderly and Their Social Network”,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Vol.14, No.3, 2010, 269-293.
- (이복자, 명승환, “노인의 정보화인식과 인터넷활용이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에 미치는 영향 :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4권, 제3호, 2010, 269-293.)
- NIA, “2012 Digital Divide Index and Survey Report”, 2013.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년 정보격차 지표 및 조사 보고서”, 2013.)
- Noh, Y.H. and Yoo K.W., “The Digital Divide and Economic Growth. Cross-Country Panel Evidence”, *Kukje Kyungje Yongu*, Vol.12, No.3, 2006, 179-204.
- (노용환, 유경원, “정보격차(情報隔差)와 경제성장 : 국가간 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 *국제경제연구*, 제12권, 제3호, 2006, 179-204.)
- Park, C.S. and C.O. Lee, “A Study on the effect of information education experience on the quality of life among the elderly people”,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8, No.2, 2003, 25-44.
- (박충선, 이춘옥, “노년의 정보화태도와 경험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대구·경북지역 노인들의 정보화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8권, 제2호, 2003, 25-44.)
- Park, K.S., “Comparison between the rural and urban elderly receiving public assistance on their needs and utilization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s in Kyonggi Province”, *Journal of Korean Social Security*, Vol.17, No.1, 2000, 175-211.

- (박경숙, “농촌과 도시 재가 생활보호노인의 욕구와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실태 비교”, *사회보장연구*, 제17권, 제1호, 2000, 175-211.)
- Shin, Y.J. and M.J. Koo, “An explorative study on computer education for the elderly and their life satisfaction”, *Andragogy Today :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Vol.13, No.4, 2010, 119-147.
- (신용주, 구민정, “노인 정보화교육과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Andragogy Today :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제13권, 제4호, 2010, 119-147.)
- Yoo, Y.S. and H.J. Son, “Research on Relationships between Internet Use and the Elderly’s Life Quality”,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e*, Vol.12, No.4, 2012, 235-244.
- (유용식, 손호중, “인터넷활용과 노인의 삶의 질과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4호, 2012, 235-244.)

◆ About the Authors ◆



Misook Lee (leems@knu.ac.kr)

Misook Lee received the B.S. degree in Statistics from Yeungnam University, the M.S. degree in Applied Statistics from Yeungnam University and the M.S. degree in Management Administration from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nd Ph.D. degree in Management Administration from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in 2008. She has been working fo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ince then. Her current research interests include Digital Management, Digital Divide, and Co-Creation.



Heesop Kim (heesop@knu.ac.kr)

Professor Heesop Kim is currently a Professor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e received his Ph.D. in Information Science from University of Northumbria at Newcastle, UK, in 2001. From 1989 to 2003, he worked at ETRI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and conducted various IT-related projects. His current research interests include Information Retrieval, Digital Divide, Digital Libraries, and User Interaction, etc.



Soongoo Hong (shong@dau.ac.kr)

Professor Soongoo Hong is currently a full Professor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Dong-A University. He received his Ph.D. in Management from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USA, in 2000. From 1999 to 2001, he worked at Texas A&M International University as an assistant professor.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Co-creation, Web Accessibility, Performance Evaluation.